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로레나 무섬증'이 번질 조짐이다. PGA 투어에서 우승 경력을 쌓았던 선수들이 스스로 무너져 타이가 우즈(미국)에게 우승컵을 헌납하는 현상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시진)를 상대하는 LPGA 투어 선수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초아 무섬증'

22언더 우승...시즌 2승째

이지영 역부족...7타차 2위

오초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슈퍼스티션마운틴의 슈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와 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2언더와 266타로 우승했다.



이지영이 지난달 31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를 성공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우승을 넘겼던 이지영은 이날 이븐파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오초아는 올해 세 차례 대회에서 우승컵 두 개를 모아 상급랭킹 3위에서 1위(55만5천550달러)로 뛰어 올랐다.

1타차 불안한 선두로 경기에 나섰지만 18번홀을 마치고 2위 그룹과 타수차가 무려 7타까지 벌어진 완벽한 우승이었다.

22언더와 266타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1년에 문밸리골프장에서 세웠던 대회 최솟타 기록(261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부터 슈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

재미교포 박진 공동 42위

PGA 취리히클래식 최종

아르헨티나의 새별 안드레스 로메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로메로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에나TPC(과 72·7천341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와 68타를 쳐 합계 13언더와 275타로 피터 로나드(호주·276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로메로는 26세에 불과하지만 작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3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재미교포 박진(31·던롭스리슨)은 3언더와 285타, 공동 4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수창초등 야구팀

소년체전 광주대표



수창초등학교(교장 배용웅)가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학과 야구예선에서 광주대표로 선발됐다.

수창초등은 지난달 25~29일까지 분량야구장에서 열린 2차 예선전 결승에서 강호 학강초등을 16-5로 제압하고 대표로 선발됐다.

A조 2위로 준결승에 오른 수창초등은 지난 28일 B조 1위 서석초등을 12-4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A조 1위인 학강초등은 B조 2위 송정동초등을 11-1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 1일 (화)
▲2008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주니치(17 : 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삼성> LG(21 : 00·SBS스포츠), <기아> 두산(18 : 30·MBC ESPN)
▲2008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 : 미네소타(07 : 50·XSPORTS)
▲07/08 프로농구 PO 준준결승 2차전 <LG : 삼성>(18 : 50·XSPORTS)
2일 (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AS로마 : 맨체스터Utd)(03 : 30·MBC ESPN)

억울한 삼세판...기어이 해냈다

한국 여자핸드볼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본선행

한국 여자핸드볼의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행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지난달 30일 밤(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님 실내체육관 '라 파르나세'에서 펼쳐진 국제핸드볼연맹(IHF) 올림픽 최종예선 3조 풀리그 최종전에서 코르디부아르를 38-21, 17점 차로 물리쳤다.

한국은 2승1무(승점 5)를 기록, 최소한 2위를 확보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올림픽 2연패(1988년, 1992년)에 준 우승 3차례(1984년, 1996년, 200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1995년) 등 세계 최강 수준으로 군림하던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베이징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작년년부터 무려 세차례나 예선을 치르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원인은 아시아핸드볼연맹의 편파관정 때문이었다. 작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은

AHF가 내세운 중동 심판의 편파관정에 휩쓸리며 1차전에서 약체 일본에 패했고 결국 홈팀 카자흐스탄에 한 장 뿐인 올림픽 직행 티켓을 내줘야 했다.

같은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위에 오르며 국제핸드볼연맹(IHF)의 올림픽 최종예선 조관정 때문이었다. 작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은

접했다. IHF가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 예선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한 뒤 재경기를 결정할 것이다.

최종예선을 치르지 않고도 곧바로 베이징으로 갈 기회를 얻은 한국은 지난 1월 말 일본에서 열린 예선 재경기 단판 승부에서 일본을 13점 차로 대파하고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AHF는 IHF의 재경기 결정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결국 여자 예선 재경기 결과는 취소되고 말았다. 남자 재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돼 다행스러웠지만 여자 대표팀은 다시 고난의 행군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CAS의 결정이 나온 건 IHF 최종예선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틀간 손발을 맞춘 대표팀은 콩고와 첫 판을 가볍게 승리한 뒤 홈팀 프랑스와 2차전에서 무승부를 일궈내며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했다.



한·중 '스틱 대결' 지난달 31일 충북 제천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서 열린 한·중 하키 여자대표 경기전에서 한국의 김미선(오른쪽)이 중국선수와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선민 MVP

여자프로농구 시상식

여자프로농구(WKBL) 안산 신한은행을 통합 우승으로 이끈 '바스켓퀀' 정선민(34·사진)이 2007-2008 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정선민은 지난달 31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67표 중 67표를 휩쓸어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이로써 정선민은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통산 여섯차례나 정규리그 MVP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정선민은 올 시즌 34경기에 출전, 평균 19.35점을 올리며 득점상까지 받았다. 정선민은 이에 앞서 용인 삼성생명과 벌인 챔피언 결전에서도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쳐 챔피언 결정전 MVP상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신한은행을 통합우승으로 이끈 입담식 감독은 여자프로농구 데뷔 시즌에 지도상을 받았다.

생애 한번 뿐인 신인상은 67표 중 38표를 얻은 배혜윤(부천 신세계)에게 돌아갔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such as 'Best Information', 'Health Food', 'Honey', 'Staff', 'Jungwon', '(Jung) Tugayon', 'Yongsung Hanwoo', 'Gyeongdong Borella', 'Miso-ki', 'Happiness Utilization', 'Kim Seon-gyeong', 'Changpyeong Anpung', 'Deli Donuts', 'Mangjeong Hamguri', 'Ahae Dabang', 'Youhag Herb', 'Hangeul Rebanchan', 'Dongu Myeongga', 'Gonggan Yeonchul', 'Hyundai Shell', 'Gwangju Hwangginsul', and 'Cheonsangdae Drama'.